

# 총장 선출방식 관련 직원 전체 [긴급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설문 기간: 2021. 4. 1.(목) 11시~4. 4.(일) 24시

---

☞ 설문 대상: 직원(법인 정관상)

---

☞ 설문 방법: 인터넷(교내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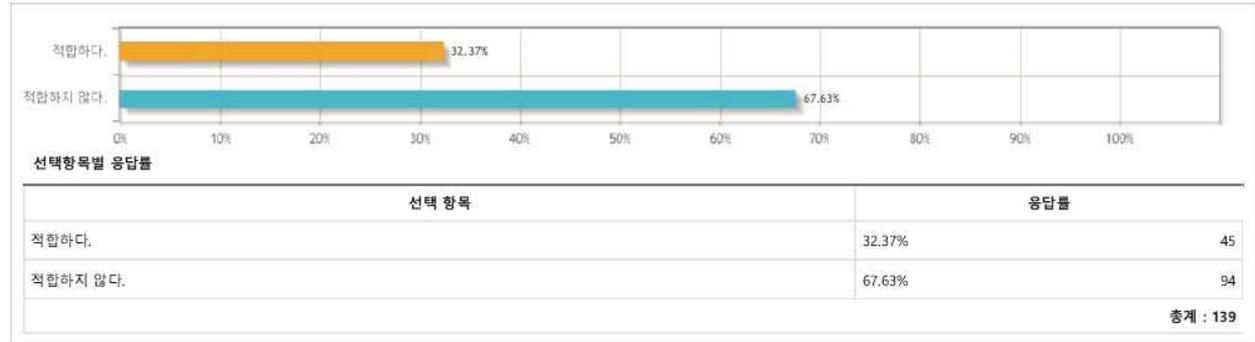
☞ 설문 응답: 139명 참여/직원 199명(휴직 포함)

---

☞ 설문 응답률(%): 69.84%

---

## 1. 지난 제12대 총장후보 선출방식과 동일한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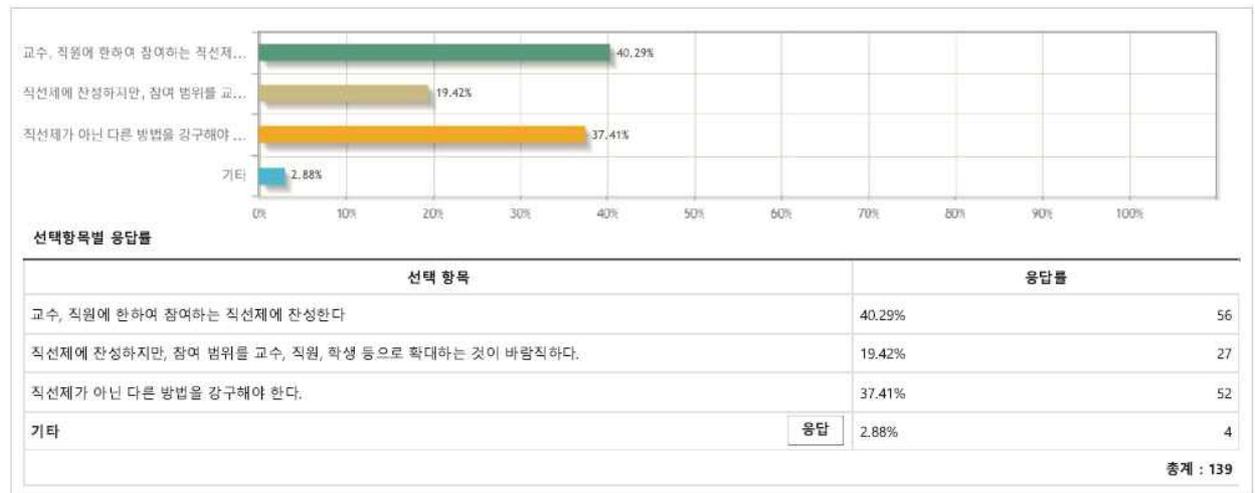


가. 적합하다. \_ 45명(32.37%)

나. 적합하지 않다. \_ 94명(67.63%)

☞ 응답: 139명

## 2. 차기 총장후보 선출방식으로서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교수, 직원에 한하여 참여하는 직선제에 찬성한다. \_ 56명(40.29%)

나. 직선제에 찬성하지만, 참여 범위를 교수, 직원, 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27명(19.42%)

다.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_ 52명(37.41%)

라. 기타 의견 및 제안 \_ 4명(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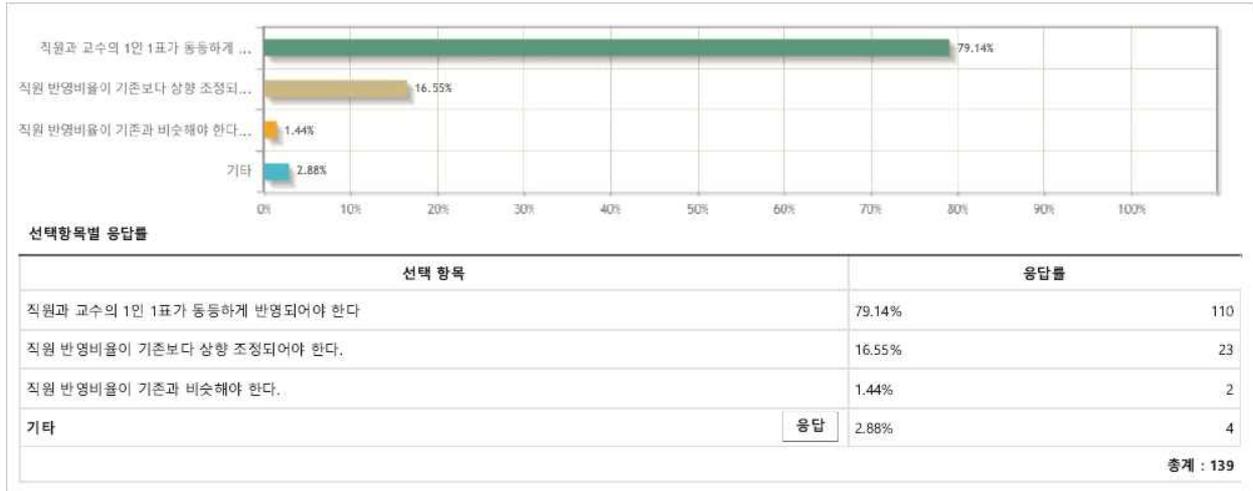
☐ 교수만 참여하는 직선제에 찬성한다.

☐ 외부 영입: 2명

☐ 직선제든 간선제든 역량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응답: 139명

3. 차기 총장후보 선출방식으로 현행 방식의 직선제가 유지된다면, 직원의 참여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직원과 교수의 1인 1표가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_ 110명(79.14%)

나. 직원 반영비율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_ 23명(16.55%)

다. 직원 반영비율이 기존과 비슷해야 한다. \_ 2명(1.44%)

라. 기타 의견 및 제안 \_ 4명(2.88%)

□ 직원은 참여해서는 안된다.

□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투표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격하게 이율배반적입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철저히 유리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와 인심 쓰듯 직원의 투표권에 대한 비율을 인정해주는 현재의 분위기가 교수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일치하는 건가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직원, 교수 모두 1인 1표로 하고, 비율은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

□ 나머지: 내용 無

☞ 응답: 139명

4. 총장후보 선출방식으로 현행 방식의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구성원의 민주성이 담보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식 \_ 46명(33.09%)

나. 구성원 직접 선거로 후보자 약간 명을 결정(선출)하여 총추위에 추천하고, 총추위에서 후보자를 심의 및 선정한 후, 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최종 임명하는 방식 \_ 70명 (5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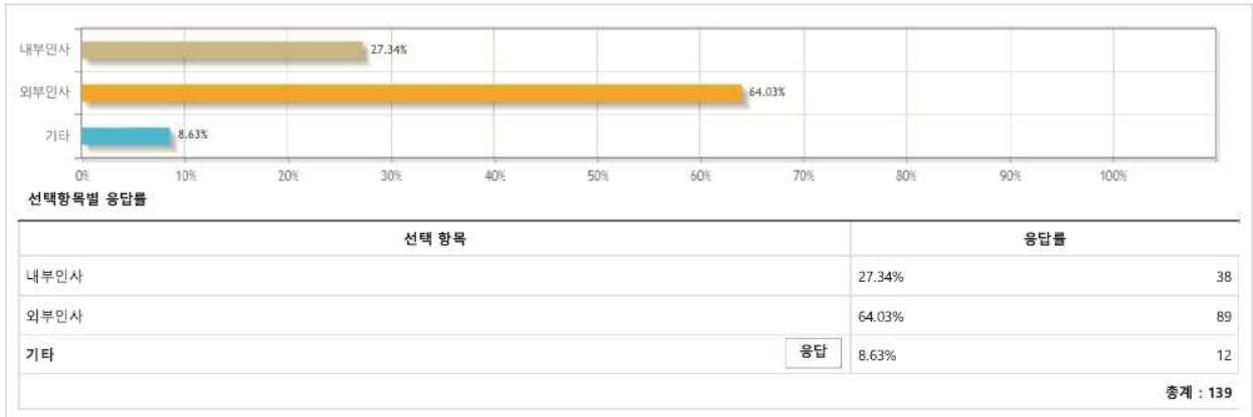
다. 대학구성원 등의 참여 없이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 임명하는 방식 \_ 13명(9.35%)

라. 기타 의견 및 제안 \_ 10명(7.19%)

- (가칭)총장역량검증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후보자 약간명을 대상으로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 구성원이 추천하되, 외부인사로 추천
- 후보추천위원회 보다는 직접 선출 방식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 이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더욱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성원의 일정인원이 추천한 복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직접선거후 이사회에 추천하여 최종 임명하는 방식
- 완전한 직선제
- 대학구성원이 후보자 1인을 선출하고, 법원에서 임명하는 방식
- 나머지: 내용 無

☞ 응답: 139명

5. 차기 총장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내부인사 \_ 38명(27.34%)

나. 외부인사 \_ 89명(64.03%)

다. 기타 의견 및 제안 \_ 12명(8.63%)

- 내외부 인사든 검증위원회 등을 통한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일정 자격을 갖춘가가 중요함.
- 관계 없다
- 내,외부 모두 포함하여 역량 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한다.
- 내외부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사
- 누구든, 학교를 구할 수 있는 사람
- 상관 없음
- 관계 없음
- 내외부 인사를 고려하지 말고 대학과 학원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약 및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사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누구나
- 둘 다 가능
- 제한없이
- 나머지: 내용 無

☞ 응답: 139명

## 6. 기타 의견 및 제안

- 외부인사로 할 경우 '경영능력'이 있는 총장을 뽑아야 할 것이며 인격과 덕망이 겸비되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학총장 이력이 있는 분으로 경영능력이 검증된 분들을 추천하여 구성원의 1차 선거 후에 총추위에 추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 것이다.
- 직원이 참여한 총장선출방식 시행 이후, 직원간 편가르기, 갈등구조가 더욱더 심화되었고 이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대학위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직원들은 어떤 분이 총장이 되건 자기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이에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를 반대합니다.
- 교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리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
- 더 이상의 정쟁은 대구대학교의 발전을 막을뿐입니다. 우리 대구대학교가 민주화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교육과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상투적인 용어로 치부하고 마는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입시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혹독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네 탓 공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대학을 제외한 지역사회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문들, 그리고 현재 구성원들은 이런 모습의 대구대학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경쟁대학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구대를 뛰어넘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충원을 지역 꼴찌, 졸업생 취업률 전국 꼴찌, 신입생 충원을 지역 꼴찌, 연구비 수주실적 상대적 꼴찌, 이게 우리대학의 현실입니다. 온통 꼴찌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단합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총장 선출이 그렇고 차기 노동조합위원장 선출도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가꾸어 놓은 제도로 잘 유지되어오고 있던 위원장 선출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중 삼중 장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지성인을 기르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구대학교의 직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 1. 현행 규정상으로도 외부인사 추천이 가능한 만큼 능력 있는 외부 책임자의 영입 노력 필요. 2. 향후 상징적으로라도 학생 등 참여 바람직 3. 인기투표 방식을 위해 장시간 진행되는 발표회(토론회)는 종료 후 대화록 등 문서 형태로도 제공 필요
- 대구대학교가 민주성을 가진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1표의 가치가 1/3로 나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상하고도 괴상한 표 산정 방식은 일부 집단 이기주의, 집단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4대 원칙 중 하나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란 투표권을 가졌다면

---

누구나 1인 1표, 1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표의 가치를 1/3으로 나눈게 어떻게 민주주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투표의 동등한 가치는 일부 구성원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의 직선제는 결국 태만하고 혁신하지 않으려는 구성원의 방패막이가 되어 우리대학이 변화에 대응 못하고 도태가 될 위험에 놓인 지방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강력하고 유능한 총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로는 총장은 1인1표권을 가진 일부 구성원의 저항이 있으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대학에 필요한 총장을 외부에서 초빙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경영진은 입학자원 고갈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총장 선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 총장 선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대학교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 현 총장 직선제를 대학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외치는 교수들이 대학 내 기득권 세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장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직원 참여 비율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시 대학 행정 보직자는 능력보다는 총장 정치 세력들로 채워지겠죠. 학교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영향력 있고, 오롯히 우리 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중립적/교수들 파벌이 아닌) 발전시킬 수 있는 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개 교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교수회 규정으로만 총장후보 선출이 타당한가? 교수회 규정은 교수회 자치규정이 아닌가? 노조 규약은 절차를 거쳐 제개정되면 관할청에 통보 및 접수하여 노동관련법으로 보호 및 공인 되는데, 교수회 규정은 대학의 기획위원회 심의나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는 순수 자치규정이 아닌가? 특히 총장의 선임은 사립학교법상, 정관상 법인에 귀속 및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중차대한 총장의 선출에 대해 교수회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철저히 상위법과 법인정관에 배치되는 규정으로 총장후보 선출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혹여 관습으로 고집하지만 한국은 성문법주의이니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상충되니 법률적 판단은 확실하게 보인다. 과거의 관습행위도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지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명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 진정한 민주대학의 총장 선출방식이라면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1인1표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출신의 권위자를 추천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입학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능한 자를 임명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대학 위기상황에서 교수 중심의 직선제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교수와 직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와 직원의 투표비율이 다른 직선제라면 기타 선출 방식(간선제 등)이 차라리 낫다고 봄.
  - 간선제 임명 총장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대학 구조조정 시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선제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다. 대부분의 결정적 사학비리는 선출 총장이 아니라 임명 총장 대학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사학 폐교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추천 인사 건, 외부 인사 건 모두 총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직선제로 뽑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추천인사가 구성원이 납득가능한 인사라면 직선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직선제든 간선제든 유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의된 바에 따라 유권자는 동일한 투표권 및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법인과 대학은 상호 상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인 바 법인의 입장에서 선출될 차기 총장을 믿고 대학 경영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학교가 먼저다
  - 대학의 경쟁력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원 경쟁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운영되어야 대학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정치적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직선제의 폐단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구성원 참여가 확실히 담보되는 변형된 간선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이사회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서는 간선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총장 선출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직선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된다.
-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는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https://union.daegu.ac.kr>